

# 화가·구입자 직거래에 문단은 갤러리들

리채·대동·제희 잇단 폐관

미술시장 불황속 운영난

유통구조 개선·기업 관심 필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식 개관하면서 광주 지역엔 문화 훈풍이 불고 있다. 새로운 문화 공간들이 문을 열고 다양한 문화 행사들도 활발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역 갤러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 미술계에 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을 닫은 갤러리들은 지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작가들의 초대전을 개최하고 색깔 있는 기획전을 여는 등 의욕적으로 활동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 크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갤러리 리채가 지난 9일 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 갤러리 리채는 남구에서 처음 문을 연 민간 갤러리로, 2012년 7월 개관했다. 미술 놀이터를 목표로 한 갤러리 리채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포함해 연중 6회 기획초대전을 열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젊은 작가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06년 개관한 대동갤러리로 최근 폐관했다. 대동갤러리는 지난 9일까지 열었던 '이철수 관화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이 갤러리는 지역에서 보기 드문 약 560㎡의 넓은 규모로 대형 전시를 자주 개최하며 주목을 받았다. 대동갤러리는 사업자가 바뀌며 이번달 말부터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으로 운영된다.

동구 동명동에서 아름다운 전시공간으로 입소문이 퍼졌던 제희갤러리는 지난 5월 문을 닫았다. 2층의 양옥 집을 개조해 도로변 널따란 공간에 위치한 제희갤러리는 마당에서부터 갤러리 입구까지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2013년 개관 후 지역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김병종·구본창 등 유명작가들의 초대전을 개최, 눈길을 끌었다.

갤러리가 폐업은 미술시장 불황이 눈에 보이는 원인 이긴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갤러리가 제외된 작품 유통 과정이 큰 이유로 꼽힌다.

작품 전시를 주로 하는 미술관과는 달리 갤러리는 상업적 성격이 강하다.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구매자

들이 미술품을 구입할 때 갤러리를 통하기 보다는 작가와 직접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갤러리 관계자는 전시회를 개최하면 콜렉터 등 구매자들이 작품만 보고 가고 작가와 따로 만나 미술품을 구매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광주지역은 미술품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미술시장은 존재한다"며 "콜렉터들이 작가와 직접 접촉해 갤러리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더 싼 값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지적하는 것은 소위 '나까마' 문화다. 일본어에서 유래한 '나까마'는 작품 판매에 급급한 작가들에게 혈값에 미술품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중개상을 의미한다. 이는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사면 비싸다'는 인식을 퍼뜨리며 건전한 작품 가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갤러리는 이 때문에 전시는 진행하지 않고 이른바 유지하며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하지 못한 지역 작가군과 작품에 기인한다는 의견도 있다. 처음 갤러리를 개관할 때는 대중들에게 신선한 전시를 선보이겠다고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곧 같은 작가의 같은 작품만 전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시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춘 작가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작품을 선보여야 하는데 그런 사례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갤러리 리채에서 마지막 전시를 한 김해성 작가는 "전시장이 많아야 우리 같은 작가들이 일반 대중에게 그림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텐데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나상욱 광주미술협회장은 "외국같은 경우에는 콜렉터들이 신뢰를 가지고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구매하며 작가들을 키워내는 경우가 많다"며 "광주 지역은 개인이 하더라도 작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자본력과 고객을 갖춘 기업체 등이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대동갤러리



제희갤러리▶

## 한국형 엘시스테마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 정기연주회

내일 광주대 호심관 대강당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 제3회 정기연주회가 12월 12일 오후 4시30분 광주대 호심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바꿨던 베네수엘라의 음악 교육 시스

템 '엘시스테마'를 벤치마킹, '한국형 엘시스테마'를 지향하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광주의 경우 남구 청소년수련관이 거점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013년부터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주자 신정민씨가 창단 때부터 음악감독을 맡아 지휘를 맡고 악장 김수연양을

비롯해 6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왈츠 2번', 스트라우스의 '박쥐' 서곡,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중 '투우사의 노래', 영화 '개리비안 해적' 등이다. 엘시스테마의 태동지인 베네수엘라 카리카스 유스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에도 참여한 플루트의 염성현(무등중 1년)군이 비제의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중 '미뉴엣'을 협연한다. 문의 062-670-501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지역 문화계 흥겨운 송년잔치



## 광주국악협회 국악한마당

1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박병주의 '진도북춤'

광주국악협회(회장 최상진)가 주최하는 2015 빛고을 국악 대축제 '송년국악한마당'이 오는 13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강귀자 문화교실의 '민속놀이 강강술래'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문명자씨의 가야금 병창 '방아타령'과 '별빛 가얏고', 이연정 무용단의 창작 무용 '달빛, 그곳에 머물다'가 이어진다.

또 김광복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장이 평조 선율과 남도 선율을 중심으로 즉흥성을 살린 피리 독주 '짚이의 소리'를 선사하

며 (사)광주농악보존협회의 흥겨운 사물놀이 '신도름'이 관객들을 만난다.

또 호남의 명무 고(故) 이상준 선생이 1998년 초연한 '노인과 바다'를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한국 무용 '갯마을'을 김해진과 황소희씨가 선보이며 이지선·표윤미·이연주씨가 함께 부르는 남도민요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 아리랑'이 이어진다.

마지막 무대는 박병주(진도북춤보존회 내드름씨) 등이 함께 하는 '진도북춤'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아이리아' 퓨전국악 콘서트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흥겨운 국악, 다양한 춤과 만나다.'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 송년콘서트가 11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국악, 춤바람 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다양한 춤과 어우러진 국악 공연을 만날 수 있다.

'비나리'를 시작으로 문을 여는 1부 '전통의 바람'에서는 사자춤과 어우러진 '그랑개', 전통 대금 산조와 어우러진 '출산조'가 선보인다. 2부 '변화의 바람'에서는 판소리 '춘향가' 한 대목과 힙합 그룹 빅 사이즈 크루가 함께하는 '사랑가', 라틴댄스가 함께 어우러진 문병란의 시·박문옥 곡 '직녀

개' 등이 공연된다.

3부 '새로운 바람'에서는 문동복춤, '부용산-세상을 품는 메아리', 플라멩코를 주제로 한 황호준 작곡의 '거울속 여인',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브랜 뉴 아리랑' 등을 만날 수 있다.

강해경씨가 총감독 및 연출을 맡았으며 김산욱, 김길중, 장현영, 이현신, 조은네, 박희재, 윤영훈, 김하성, 성민걸, 손도보라씨 등이 무대에 오른다. 국립민속국악원 사물단, 문현화무용단, 놀이꾼들 도담도담, 빅 사이즈 크루, 무용가 홍영실씨 등이 특별 출연한다. 무료 공연&감동 후불제.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립미술관 13일 클래식·국악 공연

광주시립미술관이 오는 13일 오후 3시 시립미술관 로비에서 '열씨구! 브라보' 송년음악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주류 음악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클래식과 국악을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공연이다.

총 2부로 구성돼 있으며 1부 클래식 공연에서는 2006년에 창단한 '꿈꾸는 예술'이 출연한다. 정찬경(바리톤), 이유정(피아노), 이환희(소프라노), 임선아(메조 소프라노), 신은선(소프라노), 김백호(테너), 김울

희(플루트), 김민수(첼로) 등이 성악 및 연주를 들려준다

2부 퓨전 국악 공연에서는 광주출신의 젊은 연주자로 구성된 퓨전국악 그룹 '각인 각색'(유태선, 정인성, 박정진, 윤현명, 조경민)과 김주희 명창이 '배 띄워라', '난감하네', '모듬북춤주곡-타(打)', '아름다운 나라' 등 판소리와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62-613-71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